

먹고  
걸고  
사랑하게 되는  
오사카

골목의 식탁에서  
만나는  
진짜 여행

# 오사카 미식 산책

OSAKA  
FOOD WALK  
TRAVEL GUIDE

이 거리에,  
맛있는 오사카가  
있다.

골목 따라 맛따라

오사카를  
가장 맛있게  
여행하는 법



PROLOGUE

## 관광지 사이에, 동네의 한 끼

간판을 따라 뛰는 대신 상점가에 머문다. 카레와 초콜릿, 오코노미야키와 생활사 사이의 오사카.

오사카를 먹는 도시라고 부를수록 일정에는 식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쉽다. 타코야키를 먹고 오코노미야키를 먹고 라멘을 먹는 체크리스트 대신, 이번에는 한 끼의 자리를 먼저 정한다. 먹지 않은 메뉴가 남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음 방문의 이유가 남는 것이다.

가라호리에서는 카레가 낮의 중심이다. 상점가를 걷고 초콜릿을 고르는 일은 그 뒤에 붙는다. 반면 북쪽 덴마에서는 오코노미야키와 스시 중 하나를 고른 뒤 나카자키초로 조금 벗어난다. 두 동네를 같은 오후에 모두 걸을 필요는 없다.

넓은 집과 작은 가게를 보면 사진을 더 찍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사람이 오가며 일하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발견은 숨겨진 문을 여는 데서가 아니라, 허락된 가게 하나에 들어가 오늘 고른 것을 제대로 먹는 데서 생긴다.

나카자키초의 민가 창문·문패·세탁물은 여행 콘텐츠의 소품이 아니다. 사유지와 골목 통행 안내를 따른다.

표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골목·시설·전망을 재현한 사진이나 지도가 아닙니다.

## CONTENTS

## 이 별책의 읽는 순서

|                 |    |
|-----------------|----|
| 이 도시를 작게 읽기     | 2  |
| 가라호리 카레와 초콜릿    | 4  |
| 덴마 점심과 나카자키초 골목 | 6  |
| 한 끼를 고르는 네 곳    | 8  |
| 한 골목 더 걷는 세 곳   | 12 |
| 기다림·예산·동행자      | 15 |
| 식당에서 보여줄 일본어    | 16 |
| 출처와 확인 범위       | 18 |
| 내 반나절 기록        | 20 |

| 먼저 정할 것  | 선택                         |
|----------|----------------------------|
| 향신료·초콜릿  | 가라호리. 점심 접수를 먼저, 카페는 유연하게. |
| 전시·철판 음식 | 덴마. 박물관 뒤 치구사, 스시는 다른 선택.  |
| 바·피로     | 실내 전시와 한 식사만 유지하고 골목은 짧게.  |

‘숨은 곳’은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대형 명소 위주의 일정에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미 유명한 식당도 포함한다. 실제 방문·시식 기록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편집안이며, 식당 접수·메뉴·휴무는 여행일에 확인한다.

WALK 01

## 가라호리 카레와 초콜릿

### 난바 밖 오사카 만나절

낮의 첫 선택은 카레 한 접시다. 그릇 안에서 여러 재료가 섞인다고 여행 일정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다. 점심을 확보한 뒤 가라호리를 걸으며 초콜릿을 살지, 카페에 앉을지 정한다.

큰 간판이 익숙한 오사카에서도 가라호리에서는 문을 연 작은 가게가 산책의 방향을 바꾼다. 상점가를 끝까지 걷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가게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코스는 식당 세 곳 완주가 아니라 점심과 단맛 사이를 걷는 만나절이다.

---

#### 1 구 야무테이 가라호리점

오늘의 카레로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65분  
품질과 당일 접수를 먼저 확인한다.

---

#### 2 가라호리 상점가

상점가·공개 거리 · 머무는 시간 예시 50분  
경사와 사유지 경계를 따른다.

---

#### 3 에크추아 가라호리 구라 본점

초콜릿 구매 또는 카페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포장과 좌석 이용 중 선택한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카페 만석이면 소매 구매로 전환 가능 여부 확인. 초콜릿도 필요 없으면 산책으로 종료.

## WALK 01 · PLAN B

## 그날의 속도로 바꾸기

### 카레를 고르는 질문

키마의 고기 종류와 오늘의 재료가 무엇인지 읽고, 맵기를 잘 모르면 조절 가능한지 묻는다. 사진 속 여러 조합을 모두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가게라도 그날 제공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루라는 설명은 채식이나 알레르기 안전과 다르다. 업체가 확인한 안내에도 채식 메뉴는 없다고 되어 있다. 필요한 식단이 맞지 않으면 카페가 아니라 점심 자체의 대안을 먼저 찾는다.

### 초콜릿은 마지막 구매가 편하다

더운 날에는 초콜릿을 사서 동네를 길게 걷는 순서를 피한다. 카페에서 먹거나, 돌아가기 가까운 시점에 보관조건을 확인해 구매한다. 소매점은 열려 있어도 카페 주문이 끝났을 수 있으므로 목적을 나누어 묻는다.

비가 와도 점심과 카페를 모두 예약으로 묶지 않는다. 카레 대기가 길어지면 초콜릿은 구매만 하거나 다음 날로 넘긴다. 구매하지 못했다고 손해 보는 코스가 되지 않게 마지막은 가볍게 둔다.

#### 비가 오면

상점가의 처마와 아케이드는 전 구간 실내 통로가 아니다. 짧게 이동하고 한 가게에서 쉰다.

#### 걷기를 줄이면

걷는 시간을 줄일 때는 상점가 전체 대신 식당에서 디저트 가게로 가는 공개 구간만 선택.

확인 근거 [001] · [002] · [005]

WALK 02

## 덴마 점심과 나카자키초 골목

철판 또는 스시를 고르는 날

북쪽 오사카의 하루는 실내 전시에서 시작해 상점가의 식사로 이어갈 수 있다. 예전 집과 거리의 관계를 보고 나면, 덴마에서 점심을 먹고 걷는 시간이 단순한 맛집 이동과 조금 달라진다.

한 끼는 철판 음식과 스시 중 고른다. 치구사와 마루만스시는 연달아 먹는 두 코스가 아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배부른 뒤 어느 정도 걷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나카자키초는 마지막의 짧은 우회로 둔다.

---

### 1 오사카 주택박물관

생활사 전시 · 머무는 시간 예시 60분  
휴관·입장마감부터 확인한다.

---

### 2 치구사

오코노미야키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65분  
스시를 고르면 이 정류장을 O-MARUMAN으로 바꾼다.

---

### 3 나카자키초

작은 가게 거리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주택 구역의 촬영·통행 안내를 따른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치구사와 마루만스시 중 한 곳만 선택. 생식이나 알레르기 조건이 있으면 주문 전에 확인.